

2019년 12월호

# 선생님을 위한 뉴스레터

## 성폭력 피해 예방

-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 2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왜 중요할까?
- 3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가?
- 4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일까?

발행월 2019. 12.  
발행인 손진호  
편집인 김도훈  
발행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여린이병원 B1  
Tel. 053-313-3909  
Fax. 053-313-3910  
<http://www.smhrc.kr>  
디자인 홍익포럼

\*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제작하였습니다.  
\* 본 뉴스레터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  
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폭력(暴力)이란,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이러한 물리적인 강제력을 성적인 형태로 가하는 것이며, 다음 세 가지 조건 하에 일어납니다.

- 1) 힘의 차이
- 2) 지식의 차이
- 3) 만족의 차이

**첫째,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센 사람 뿐 아니라, 조직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대개 남자보다는 여자가, 어른보다는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상관보다는 부하가,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보다는 돌봄을 받은 사람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힘이 약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성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에 대해 무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인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지능이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만족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성적인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고 그 사람의 반응에 만족을 느낀다면 상대방과 신체적인 접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한 것이므로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 2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왜 중요할까?

성폭력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해서”라는 미사여구가 동원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망가뜨리겠다.”는 협박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련된 두 사람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이 폭력 중에서도 ‘영혼의 살인’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폭력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 중에서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폭력이 중단되기 어렵고, 피해자로서 지지를 받기 어려운 형태의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어? 왜 그런 옷을 입었어?”라는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당하는 성폭력의 경우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신이 당한 것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기 쉬운 지금까지의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아도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직후에는 그 의미를 모르다가 나이가 들어 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 후 그 의미를 알게 되어 지연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후 증상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받은 피해가 적거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흔하지만, 남성 피해자들도 3-10퍼센트 정도로 생각보다 많으며 남성 피해자의 경우 수치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더 힘들어하므로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남성에게도 “성적인 방식으로 폭력을 경험 했습니까?” 라고 성폭력 피해경험을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맞아서 멍이 들거나 피가 나면 말을 하지 않아도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 표시가 나지 않으므로 본인이 스스로 주변에 알리지 않는 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알려더라도 피해자가 오히려 이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누구보다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당신은 이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 3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가?

성폭력 경험은 우울장애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경우 초경이 시작되고 폐경이 될 때까지가 남성에 비해서 우울증이 두 배정도 많은 기간인데, 한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빼고 계산해본 결과 이 시기 남아 우울증 유병율이 같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울장애에 미치는 성폭력 피해의 영향력이 큼니다.

다른 폭력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는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라는 뇌부위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하여, 이십대 후반까지 점차적으로 발달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두 뇌부위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대처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감정 조절력이 약해지는데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떨어져서 살아가면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와 비슷한 성별, 외모, 직업 등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건이 생각나서 힘드니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되어 대인 기피가 생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폭력 피해로 인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문제가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서 친밀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며 그런 친밀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적인 상호작용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려 치유할 기회가 없을 경우, 살아가면서 이런 친밀한 행위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상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회피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나를 싫어해서 저러나?’ 하는 오해를 하기 쉽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 때문에 힘든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하여 평가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 성폭력 후유증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장하면서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다른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피해 경험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려움을 딛고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는 ‘외상 후 성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4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일까?

앞서 말한 대로 성폭력은 약자를 향한 폭력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선생님은 학생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힘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학대 폭력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므로, 앞에서 말한 대로 성폭력 피해를 되도록 빨리 알리고 이미 입은 상처를 빨리 평가하고 더 이상 심각한 상처가 되지 않고 잘 아물 수 있도록 돕는 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덧붙여 이러한 선생님으로서의 의무로 만이 아니라 성폭력은 어느 사회에서나 매우 흔한 폭력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가족을 위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은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므로 가해자들이 스스로의 폭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날 때도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는 학생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선생님이 피해자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이보다 나은 대접을 받아도 되는 존재야.” 라고 하신다면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막상 가족은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피해자에게 “왜 그런 옷을 입었어?”, “내가 그런 앱 깔아서 채팅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그런 곳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피해당한 아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힘이 되어주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이전보다는 많이 무너졌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생님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학생을 가르치시기를 기원합니다.